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에 관한 연구: 2006년~2010년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ype of Shaman's Costume in Honam District:
Centering on the Field Survey of Years 2006~2010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생활과학연구소
부교수 · 연구원 김 은 정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 Human Ecology Rese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Research Fellow : Eun Jung Kim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V.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분석 |
| II. 호남지역의 무속과 무복의 종류 | V. 맺음말 |
| III.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stumes, which a shaman wears for the ritual of exorcism in the Honam region. The findings are based on a field survey of the exorcism ritual, which is performed by hereditary shamans and forms part of an annual event in the Honam region. Two main features of the shamans' costumes were observed. Firstly, the types of shamanic costume worn for gut reflected the general traditional costume but with some variations. White-colored costumes are largely found in the Honam region. Secondly, the types of costumes, which shamans wear in the Honam region, are also varied. The different types of shamanic costumes, regardless of Ga-sa, can be classified into Jang-sam, Jeon-bok, or Duru-magi, variations in the patterns of costumes, differences in the types of conical hat, and modifications in the dress code.

주제어(Key Words) : 전통복식(traditional costume), 장삼(Jang-sam), 굿(Gut), 무속(Shaman), 호남(Honam)

Corresponding Author : Eun Jung Kim, Departmen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47 Fax: +82-62-530-1349 E-mail: kimej0234@hanmail.net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10-327-G00053).

I. 머리말

우리나라 무속복식을 분류하는 유형에는 강신무권의 무복과 세습무권의 무복이 있다. 이러한 두 유형인 강신무와 세습무 중에서, 호남지역의 무녀는 전형적인 세습무에 속한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세습무는 현격히 감소되어 가는 가운데 정통 무계의 세습이 거의 와해되어버린 대신, 강신무 계통의 무당이 점차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무속사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승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을 세습무권이라고 확정하고 호남지역의 굿에서 착용하는 무녀들의 무속복식은 백색 한복이나 백색 장삼 외에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좀더 심도 있는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무속복식분야 연구동향은 강신무권 무속복식의 고유성과 착용양상에 따른 무속복식의 형태와 종류에 따른 연구(김순덕, 1981; 박영주, 1975; 유효순, 2000; 이자연, 1996)과 강신무복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은정, 2003a; 박정애, 1991)와 강신무복의 역할(김은정 2003b; 소황옥, 2003; 이자연, 1996)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세습무권의 무속복식에 대한 연구는 상징적 의미(양미경, 1997) 외에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는 호남지역 무속복식은 종류나 형태가 전통적으로 다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구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굿의 특성상 굿의 현장조사가 지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호남 지역에서 굿을 연행했던 무녀들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재(2006년-1010년) 호남지역 세습무권의 무복종류의 비교분석을 통해 유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호남

지역의 굿에서 무녀들이 사용하는 무구는 전통적인 생활에서 사용했던 전통복식이나 생활도구이며 무녀들이 착용하는 무속복식 역시 전통적인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가시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통적인 복식문화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한국의 기층문화에 나타난 무속복식 유형이 문화적 상징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무속에 관련된 문헌고찰뿐만 아니라 굿이 진행되고 있는 연행현장을 참관하는 필드조사가 이루어졌다. 필드조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타 전공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던 굿의 현장사진과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II. 호남지역의 무속과 무복의 종류

1. 호남지역의 무속

우리나라 무속은 중부이북과 이남의 두 가지 다른 무속문화층을 가지고 있는데 제의 면에서 볼 때 중부지역 강신무의 굿과 호남지역 세습무의 굿으로 나누어진다. 굿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무속에 의탁하려는 마음에서 진행되는데, 호남지역의 굿은 무가나 무악을 통해 굿거리 의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호남지역 굿의 종류와 진행과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굿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위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굿과 당굿, 병을 고치고자 하는 치병굿이나 죽은 이의 영혼을 씻겨서 천도하고자 하는 씻김굿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당굿과 가정굿등이 있다(이경엽, 2004). 현재 호남지역은 과거의 당골로 불리우는 무녀와 그 당골이 가지고 있던 당골판이 깨어

〈표 1〉 굿의 분류와 무녀

구분	굿의 종류	장소와 일시	무녀	굿거리	
행사 굿	여수 풍어굿	여수 국동 영당 (2007. 5. 6)	박경자(세습무) 선옥례(세습무) 박명례(세습무)	부정치기-제석-거리넛-고풀이-길담음	
	법성포 수륙제	법성포수협위판장 (2008. 10. 26)	전금순(세습무) 이장단(세습무)	부정치기-제석-씻김-거리넛-고풀이-길담음	
	순천 혼맞이굿	순천, 한옥글방 (2010. 10. 16)	김명례(세습무) 박선애(세습무)	성주굿-제석-혼맞이-오구-씻김-길담음-중천	
굿의 분류	당 굿	내림굿	순천 굿당 (2006. 9. 26)	선옥례(세습무) 최상남(강신무) 오정아(강신무)	부정경-선부리-혼맞이-고풀이-오구-조상내림-씻김-길담음-중천
	망자혼사굿	광주 무등산 굿당 (2009. 7. 4)	유점자(세습무) 함중엽(세습무)	안당-초가망석-넛올리기-제석-고풀이-씻김-길담음-중천	
가정 굿	초분이장굿	진도 의신면 가정 (2006. 10. 31)	채정례(세습무) 안정자(세습무)	조상아뢰기-초가망석-손님굿-제석굿-넛올리기-희설-씻김-고풀이-길담음-중천	
	저승혼사굿	목포 산정동 가정 (2007. 7. 15)	송순단(세습무)	안당-초가망석-손님-제석-고풀이-씻김-넛올리기-길담음-중천	

졌으나, 굿을 진행할 때는 어떤 종류의 굿이건 항상 씻김굿이 행해지고 있다(편성철, 2009). 이러한 호남지역의 굿의 진행과정은 어떠한 유형의 굿이건 씻김에 해당하는 영돈말이와 길뉘음이 연행되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 굿을 연행하는 과정에도 강신무들이 끼어들면서 굿거리 구성이나 진행에도 변화가 생기고 단순했던 무복의 종류와 형태도 차츰 변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장답사가 이루어졌던 굿중에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무녀들의 무복종류와 형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표 1>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던 호남지역 굿을 행사굿, 당굿, 가정굿으로 분류하여 굿의 종류, 연행장소와 일시, 굿거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2. 호남지역에서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

호남지역에서 무녀가 착용하는 무속복식의 종류나 형태도 굿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이나 경기지역인 중부 이북지방의 무속은 무병현상에 의한 강신무가 굿을 연행하며 화려하고 다양한 무속복식을 착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무속복식은 각 굿거리마다 해당 신의 의복을 입음으로써 그 신이 내렸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가시적인 표현이다(김은정, 2004). 반면 호남지역은 세습무가 우세하여 복식에 있어서 중부 이북과는 달리 각 거리마다 신을 상징하는 신복이 축약되어 단순한 유형으로 백색 한복인 치마나 저고리 이외에는 무복을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 호남지역에서는 대부분 세습무와 강신무가 연합하여 굿을 연행하고 있어 세습무녀가 착용하는 무복도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굿을 분류하여 무녀가 착용했던 무복의 종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행사굿 풍어제

풍어굿은 5-6월에 여수 진남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영당에서 축제의 일환인 행사굿으로 연행되고 있다. 본 굿에서 착용했던 무복은 호남지역의 전형적인 세습무녀가 착용하는 단순한 전통한복인 백색저고리, 치마뿐만 아니라 형태가 변형된 다양한 색상의 전복과 수식으로 허리주머니를 착용하였다.

무녀 박경자는 전통적인 백색 여자한복을 착용했다. 무복의 형태는 전통한복 저고리와 동일하게 직령교임으로 되어 있었고, 여밈은 고름으로 묶었다. 겹옷은 거리에 상관없이 옥색소재인 반비계통의 장삼을 착용하였다. 장삼은 상하의가 연결된 두루마기형태로 직선적인 평면구성이다. 고깔은

두 가지 유형을 착용했는데, 두 유형 중에 전자는 백색 천으로 네 귀를 접어 만든 장식기법이 없는 형태이며, 후자는 접은 부분에 화려한 자수가 수 놓여진 형태였다. 본 굿에서 특이한 것은 무녀 박경자가 허리에 찬 흑색주머니이다. 주머니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으로 옴팡이 아닌 귀주머니로 제작하여 허리끈에 부착했다.

무녀 박명례가 착용한 무복전복은 맛깃으로 되어있었으나 깃에는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꽃문양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다. 깃에는 잣 물림이 있으며 앞길과 뒷길의 색상은 남색으로 꽃문양의 금박이 있다. 허리에는 홍색 대대를 매고 있는데, 목단 꽃문양의 자수로 기계자수가 있다. 무녀 선옥례가 착용한 옥색전복 깃에는 꽃문양이 수놓아졌으며, 색동의 파이핑이 둘러졌다. 착용한 무복장삼은 승복이나 기존의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장삼과 비교할 때 형태나 장식기법에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2) 행사굿 수록제

법성포 수협 위판장에서 이루어졌던 굿은 전통 무속 수록제 제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행사 굿이다. 무녀 전금순무복은 백색저고리, 치마뿐만 아니라 철릭형의 장삼과 자수가 화려한 홍색대대와 자수가 화려한 홍·녹색 대대, 자수고깔,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무복장삼의 깃은 직령교임으로 되어 있으며, 여밈은 고름으로 되어있다. 고깔은 종이 고깔과 천 고깔 두 가지를 착용하였다. 무녀 전금순이 고깔을 쓸 때는 종이 고깔을 먼저 쓰고 천 고깔을 썼다. 무녀는 녹색가사를 어깨에 두르고 허리부분에 홍색대대를 묶었다. 홍색공단인 걸감에는 십장생문양인 꽃과 동물이 화려하게 수 놓여져 있으며, 가선은 색동 파이핑이 둘러졌다.

무녀 이장단은 백색저고리에 홍색 고름이 있는 회장저고리와 백색치마를 착용했다. 무복장삼은 직령교임식인 맛깃으로 되어 있으며, 두루마기형태로 구성되었다. 긴소매는 3겹으로 접어 반비처럼 착용하였다. 가사는 따로 착용하지 않고, 장삼의 고름을 길게 하여 뒤로 매어 묶었다. 종이고깔은 백색 빛이 나는 한지를 접어서 만든 고깔이다. 고깔은 굿이 시작되기 전 무구를 준비 할 때 무녀가 한지를 직접 접어서 만들었다.

3) 행사굿 혼맛이 굿

혼 맛이굿은 죽은 자의 혼을 맞이하여 씻김을 통해 저승으로 천도하고 산자의 현세적 삶에 대해서도 축원기 위한 행사 굿이다.²⁾

무녀 김명례는 백색저고리에 홍색 고름이 있는 회장저고

1) 민속학분야 학자들이 분류하는 세습무녀들로서 20년 이상 호남지역에서 굿을 진행하고 있는 무녀를 말한다.

2) 『김명례 굿마당, 혼맛이굿』 팸플렛, 2010년 10월 16일 오후 2시, 순천 한옥글방

〈표 2〉 호남지역 곳에서 착용하는 무녀들의 무속복식 종류

곳의 분류	곳을 연행하는 무녀 모습	무복의 종류	
풍어제 (부정치기)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옥색반비장삼, 천고깔, 옥색전복, 남색전복, 홍색대대	
행사곳	수륙제 (제석거리)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옥색두루마기, 천고깔, 백색장삼, 홍색대대
혼맞이곳 (길뒹음)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백색반비장삼, 종이고깔	
곳당	내림굿 (조상내림)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백색장삼, 남색전복, 홍색전복
	망자혼사곳 (제석거리)		남색치마, 백색저고리, 백색반비장삼, 종이고깔
가정곳	초분이장곳 (제석거리)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백색반비장삼, 종이고깔
	저승혼사곳 (제석곳)		백색치마, 백색저고리, 백색반비장삼, 종이고깔

리와 백색치마를 착용했다. 무녀 김명례는 주 무녀임에도 곳이 진행되는 동안 장삼을 착용하지 않았고, 고깔도 쓰지 않았다. 무녀 박선애는 노방으로 제작된 백색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다. 무복저고리 소매는 두리 소매이나 부리부분에

겹으로 접어 부분적으로 형태변형을 하였다. 겹웃인 무복장삼은 직령교입식인 상하의가 연결되어 있는 두루마기형으로 반비로 구성되었다. 가사는 따로 착용하지 않았고, 장삼의 고름을 길게 묶었다. 저고리는 백색에 홍색 고름이 있는 회장저고리를 착용했다. 고깔은 무녀 박선애만이 제석과 씻김에서만 착용하였는데, 유백색 빛이 나는 한지를 접어서 만든 고깔이다. 고깔은 곳이 시작되기 전 무구를 준비 할 때 악사가 한지를 접어서 만들었다.

Ⅲ.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

현장조사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호남지역에서 세습무가 연행했던 곳에 나타난 무속복식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치마 저고리

세습무나 강신무와 상관없이 신의(神衣)는 기본복식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착용하였다. 강신무의 경우는 화려한 색상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호남지역인 경우는 곳이 시작되면 대부분 백색 저고리와 치마를 기본으로 착용한다. 주로 곳에서 백색만을 선호하는 것은 호남지역에서 죽은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상가(喪家)에서는 꼭머리 씻김굿을 하였는데, 이때 애도의 뜻을 나타내는 백색을 입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백색 무복착용은 망자나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컸으며 만약 백색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한 노란빛 혹은 흰빛에 가까운 옷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최진아, 1999). 이러한 무복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은 무녀 유점자가 착용하는 무복치마만을 제외하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던 모든 곳에서 무녀는 백색치마와 저고리를 기본적으로 착용하였다. 하지만 무녀에 따라서 무복저고리 깃이나 고름부분에 장식기법이나 형태에 부분적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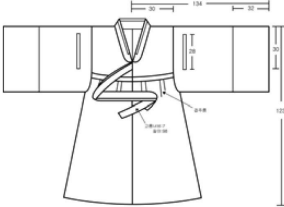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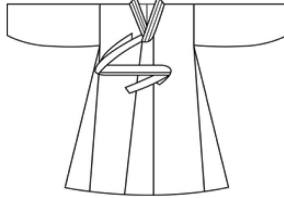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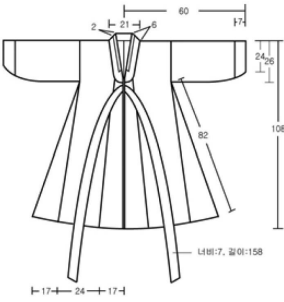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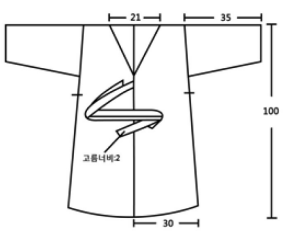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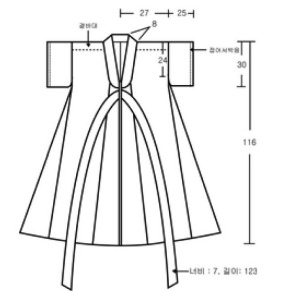
2. 장삼

현재 곳거리에서 볼 수 있는 호남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무복 장삼은 조선시대 승녀들이 착용했던 승의(僧衣)인 장삼으로 상하의가 연결되어 있는 두루마기형과 칠림처럼 하상(下裳)에 주름이 잡힌 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무녀 박경자가 곳에서 착용한 무복은 두루마기 형태가 변형된 옥색의 반비형태이다. 이러한 장삼에서 나타나고 반비의 형태는 무녀 이장단³⁾의 구술처럼 두루마기에 소매를 접어

3) 이장단(1954년생, 2007. 9. 20. 광주광역시 계림동 자택에서 인터뷰) 무업경력 39년으로 진도 무계의 시택으로 시집와 악사인 남편 박영태와 함께 무업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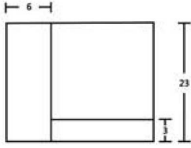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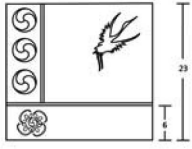


〈표 3〉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장삼의 유형

분류	호남지역 무녀가 착용한 포		유형
	곳의 사진자료	도식화	
철릭형 장삼			색상은 백색 소매에 아귀가 있는 상의하상식으로 하상에 두겹주름이 잡혀 풍성한 실루엣 형성 색상은 옥색 형태는 직령교임으로 상하연결 무가 있음 (전금순무녀)
두루마기			
두루마기형 장삼			색상은 백색 형태는 두루마기형 장삼의 소매를 접혀 반비형태로 보임 맞깃으로 상하 연결 옆길에 무가 있음 (이장단 무녀)
반비형 장삼			색상은 옥색 형태는 반비로 장삼은 것이 없고 좌우대칭이며 전복과 두루마기가 변형된 장삼 (박경자무녀)
반비형 장삼			색상은 백색 형태는 두루마기형 장삼으로 소매는 두번 접혀 반비형태 맞깃으로 좌우 대칭 연결, 고름이 길어 뒤로 여며서 묶음 (박선애 · 송순단 · 유점자 · 채정례무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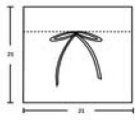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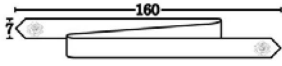
입었던 것이 오늘날의 무녀 유점자, 채정례, 송순단, 안정자가 착용하는 무복반비형장삼의 형태로 고착화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무녀 전금순, 전영애가 착용한 철릭유형 무복장

삼은 세습무와 강신무의 혼용으로 곳을 진행하면서 받은 강신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무당내력』이나 신운복의 풍속화인 무녀신무도를 보면 곳을 하는 무당이 홍색철릭을 착

〈표 4〉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고깔의 유형

분류	호남지역 무녀가 착용한 고깔		유형
	곳의 사진자료	도식화	
천 고깔 (마름모형)			소재는 백색 면 형태는 장식이 없는 마름모형 천고깔 (박경자, 전영애무녀)
			
종이 고깔 (세모형)			소재는 백색한지 형태는 한지로 옆면을 3번 접어 앞에서 나비모양으로 묶은 형태의 종이고깔 (이장단, 채정례, 박선애무녀)

〈표 5〉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수식

분류	호남지역 무녀가 착용한 수식		유형
	곳의 사진자료	도식화	
주머니			소재는 흑색합성섬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정사각형 으로 귀주머니 (박경자 무녀)
가사			소재는 겉감이 녹색공단임 형태는 십장 생문양 수 놓여 있음 안감은 홍색 공단 (전금순, 전영애무녀)
대대			소재는 홍색 합성섬유에 꽃문양의 화려 하게 자수가 놓여 있음 (선옥례, 박명례무녀)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은정, 2004). 하지만 호남지역 세습 무경우는 신격을 상징하는 다양한 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장삼만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장삼에 철릭의 형태적 요소가 가미된 것 같다. 이러한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무복장삼의 변화는 강신무복 장삼과 전통복장삼이 혼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고깔

무녀 최정례, 이장단 송순단, 박선애, 이장단 고깔은 창호지·한지 등의 지류(紙類)를 접어서 만드는 세모형 고깔이고, 무녀 박경자, 선옥례, 전금순 고깔은 황해도 서울지역에서 착용하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마름모형 고깔을 착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서울곳과 황해도곳에서의 고깔은 감사류의 흰 천으로 만들며, 호남곳에서는 흰색 무명이나 창호지·한지 등의 지류(紙類)를 접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종이고깔은 굿이 시작되기 전 현장에서 굿을 하기 직전에 손수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무녀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백색 종이고깔은 제석거리에서 착용한다는 호남지역만의 굿거리 특성이 그동안의 견해와는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고깔은 천으로 제작한 마름모형(◇)과 한지로 접어 만든 종이 고깔은 세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호남지역 굿에서 세습무녀가 착용하는 고깔을 분석해 보면 지역에 관계없이 고깔의 형태가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서로 다른 고깔이 착용되고 있었음을 <표 4>를 통해 알 수 있다.

4. 수식

호남지역에서는 무복에 수식을 하지 않으나 무녀 박경자는 허리에 흑색 구주머니를 착용하였다. 굿거리에서 주머니를 착용할 때는 서울이나 황해도 지역에서 강신무녀가 애기씨를 상징하는 엽낭주머니를 허리에 차기도 하지만, 호남지

역에서는 주머니를 차지 않았으나 세습무녀 중에 무녀 박경자는 흑색 주머니를 착용하였다. 세습무계인 호남지역 굿은 장삼을 입고 승려를 표방하는 가사를 과거에는 두르지 않았다. 서울곳이나 황해도 곳의 경우 제석거리에서 가사를 상징하는 화려한 대대로 수식을 하였으나, 최근 호남지역에서는 무녀 전금순, 전영애 경우는 제석거리뿐만 다른 굿거리에서도 강신무의 영향으로 유사한 가사와 대의 착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이를 통해 현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호남지역 도심근교의 굿당이나 축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사굿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굿의 현장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무복의 종류와 형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분석

호남지역에서 전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의 유형을 제시해보면 실제 호남지역 굿을 연행할 때 착용하는 무복 유형은 백색치마, 저고리와 백색 반비장삼, 세모형의 한지고깔 외에도 철릭형의 장삼, 유색에 수장식이 화려한 전복, 옥색 두루마기, 홍색대대와 마름모형 천 고깔에 지수 장식이 있는 고깔이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러한 호남지역에서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양상은 기존의 민속학이나 복식학 분야에서 정리한 개념과는 달리 호남지역 무속복식의 유형이 달리 나타났다. 이는 세습무권의 무복이라는 보편적인 고유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강신무권에 흡수되고 있는 시대성이 반영되어 호남지역 무복유형은 종류가 다양해지고 형태의 장식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호남지역 세습무가 착용하는 무복 유형

호남지역의 굿 유형 분류	굿거리에서 착용한 무복의 유형										무권 (巫圈)
	장삼		전복	두루마기	치마	저고리	고깔		대대		
	반비형	철릭형					천	종이	허리	어깨	
행사굿	풍어제	○	○		○	○	○			○	
	수륙제		○			○	○	○			○
	혼 맞이굿	○			○	○		○			
당굿	내림굿		○		○	○	○				세습 무녀
	망자혼사굿	○			○	○		○			
가정굿	초분이장굿		○		○	○		○			
	저승혼사굿		○		○	○		○			

1. 백색중심의 무복 색상 단일화와 착용 변이성

무속복식은 무속이 가지는 주술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은 전통복식에 기준을 두되 부분적 변화를 주어 일반 전통복식의 유행성을 반영하였으나 백색중심 색 기호 경향을 형성하여 호남지역만의 백색무복의 색 단일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무복이미지로 다양한 색상을 선호하는 강신무와 다르게 무복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 색상 이미지에 중요성을 두었다. 호남지역의 세습무들이 착용했던 무복의 백색선호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색채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망자 혼사굿에서 무녀 박경자가 남색치마를 착용하는 것 외에는 조사가 이루어졌던 모든 굿에서 백색치마와 저고리를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호남지역에서 착용한 백색의 한복은 무녀라는 신분을 표방할 뿐만 아니라 연행하는 굿의 순수한 본연의 이미지에 대한 상징성을 무복에 부여하고자 하였다. 백색중심의 무속복식 단일화로 호남지역 세습무녀는 백색장삼과 백색 종이고깔을 착용하였으나 굿거리중 제석거리에서 한정되어 착용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관없이 굿거리 내내 고깔을 착용하는 무녀가 많았다. 이는 호남지역의 굿에서 볼 수 있는 무복의 착용방법이 굿의 시각적 효과나 편리성을 위해 굿거리에 상관없이 착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강신무복의 영향에 따른 무복의 종류 다양성

호남지역에서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의 종류는 백색치마·저고리·장삼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무복을 착용하였다. 겉옷은 장삼을 기본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직령인 두루마기형태인 반비형과 직령교임인 상의하상형태인 철릭형으로 분류되었다. 직령인 두루마기형태인 반비형장삼은 목포혼사굿과 광주굿당 혼사굿, 순천 혼맞이굿에서 착용하였고 직령교임인 상의하상형태인 철릭형 장삼은 법성포 수륙제에서 착용하였다. 장식기법이 화려한 전복은 여수 풍어굿·순천 내림굿에서 착용하였으며, 두루마기는 법성포 수륙제에서 착용하였다. 호남지역 세습무의 무복에서 색복은 1969년 노무 박선내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진도에서도 무복으로 색복(色服)이 존재하였다고 한다(김태곤, 1985).⁴⁾ 이러한 색복자료는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호남지역 굿판에서 전통성 있는 굿을 연행하는 세습무로 알려져 있는 박경자무녀 역시 면답조사⁵⁾를 통해 예전에는 색옷을 입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실제 굿판에서 반비형 장삼을 착용하고 굿을 연행하였다. 하지만 박선내무녀와 전금순무녀의 신입성이란 무복이 백색장삼인지 전복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무녀 전금순은 큰굿을 연행할 때 색복은 고깔과 함께 착용하므로 장삼이 신입성 무복이라고 증언하고, 무녀 박선내는 색복의 형태가 남색전복을 의미하고 있어 호남지역의 색복을 착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재 호남지역 굿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장삼, 전복, 두루마기가 착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3. 무복의 장식요소 가미에 따른 형태 변용

호남지역의 굿에서 무녀들이 사용하는 무구는 전통적인 생활에서 사용했던 전통복식이나 생활도구이며 무녀들이 착용하는 무속복식 역시 전통적인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무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적 의미를 표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속행위 자체를 형상화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무속 환경의 변화는 강신무와 세습무의 혼용을 가져왔으며, 전형적인 종교적 패턴이 강신무와 세습무가 호남지역에도 공존하게 됨으로서 무복의 형태변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차츰 호남지역 세습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이 서울지역 강신무복의 유형으로 변화를 주는 전이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이성은 호남지역에서 행하는 굿중에서 특히 행사굿이나 굿당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자수가 있는 전복과 가슴과 허리를 묶는 화려한 자수가 있는 대대이다. 법성포 수륙제에서 무녀 전금순과 여수 풍어굿에서 무녀 선옥례는 강신무 굿에서만 볼 수 있는 화려한 자수가 있는 홍색과 녹색대대를 착용하였고, 남색전복의 깃과 길에도 금박과 자수 장식을 가미하였다. 또한 여수 풍어굿에서 무녀 선옥례와 박명례는 화려한 꽃 자수 문양이 있는 천 고깔을 착용하였고, 혼맞이굿에서 무녀 박선애와 망자혼사굿에서 박경자는 무복저고리의 깃이나 수구부분에 장식기법을 주었다.

호남지역에서 굿을 연행할 때 마다 한지를 접어 제작하는 종이고깔은 제석거리에서 무녀가 백색치마와 저고리만을 착용하였고 이는 불교적 상징인 승려를 표방하는 순수한 세습무의 종교적인 의미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호남지역 굿거리에서는 종이고깔이 천을 소재로 한 고깔로 전이되고 장식기법을 가미함으로써 형태변화가 많았다. 천을 소재

4) 전라북도 고창 지역의 노무 배성녀(1890년생)는 19세 때 어른들이 신입성이라 하여 큰굿에만 입던 무복을 보았으나, 배씨 자신이 입어 본 적이 없어 자기 대(代)에 와서는 무복이 없어졌다고 했다. 신입성은 소매가 없이 양 옆구리와 등 뒤가 터졌고, 겉은 남색, 속은 홍색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오늘날 다른 지방의 무복인 전복(戰服)과 같은 형태로 추측된다.

5) 연구자가 현장조사에서 무녀들과 면답에 의하면 노무인 박경자무녀(1932년생, 2007. 5. 6. 여수 풍어제 행사장에서 인터뷰)는 예전에도 유색한복을 착용했다고 하며, 전복 노무 전금순무녀(1927년생, 2008. 10. 26. 법성포 수륙제 행사장에서 인터뷰) 역시 큰굿에서 신입성 옷인 장삼에 홍색대대를 착용했다고 한다.

로 한 고깔로 화려한 형태로 변형은 강신무녀의 무복이 세습 무녀의 무복에 무의식적으로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맺음말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는 무복은 세습무와 강신무라는 유형을 구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호남지역에서 착용하는 무복의 유형은 무속역사와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문화환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날 착용하는 무복으로서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차츰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호남지역 곳의 현장에서 세습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첫째,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유형은 백색 중심의 무복 색상 단일화와 착용변이성이다. 무녀가 착용하는 무복은 전통복식에 기준을 두고 일반 전통복식의 유행성을 반영하였으나 백색무복의 호남지역만의 색 단일화와 제석거리에서만 백색장삼과 백색 종이고깔을 착용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관없이 굿거리 내내 착용하는 무녀가 많았다. 이는 곳의 시각적 효과나 굿 진행의 편리성을 위해 굿거리에 상관없이 착용되었다.

둘째, 호남지역 무녀들이 착용하는 무복은 종류에 따른 형태가 다양하였다. 백색 반비장삼과 철릭형의 장삼, 유색에 자수 장식이 화려한 전복, 옥색 두루마기, 홍색대대와 세모형의 한지고깔 외에도 마름모형 천 고깔에 자수 장식이 있는 고깔이 착용되고 있었다. 이는 호남지역에 강신무녀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강신무복의 영향에 따라 호남지역 세습무의 무복종류가 다양해지고 시대성이 반영되었다.

셋째, 호남지역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세습무녀의 무복은 장식적 요소 가미되면서 장식기법, 소재의 다양화로 형태변용이 나타났다. 이는 곳의 주술적 의미를 강조하기 보다는 강신무복의 영향을 받아 무녀의 개성에 따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 무복제작의 형태, 장식기법이 변형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인간과 신령을 잇는 상징 卍具**. 서울: 민속원.
- 김순덕(1981). 한국 무속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3a). 망자천도굿에서 상징하는 무복의 특성. **한국 인류학회지 27**, 152-159.
- 김은정(2003b). 무복 장삼의 고찰. **비교민속학 25집**, 545-564.
- 김은정(2004). **한국의 무복**. 서울: 민속원.
- 김태곤(1985).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 김태곤(1993). **韓國의 巫俗**. 서울: 대원사.
- 박영주(1975). 한국무속복식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애(1991). 무복의색과 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항옥(2003). 무속복식의 역할에 관한 논의. **비교민속학 24집**, 227-262.
- 순천 한옥글방(2010). 김명례 굿마당 혼맞이굿 팜플렛.
- 유효순(2000). 한국 무속복식의 조형성 고찰. **服飾, 50**, 5-20.
- 이자연(1996). 서울지방의 무속복식에 관한 연구. **服飾, 30**, 117-126.
- 이경엽(2004). **삶의 끝자락에서 펼치는 축제 씻김굿**. 서울: 한얼미디어.
- 양미경(1997). 한국무복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服飾 31**, 5-16.
- 최진아(1999). 진도 씻김굿의 물질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편성철(2009). 씻김굿에서 희설의 의미. **한국무속학, 18**, 173-196.

접 수 일 : 2010년 12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1년 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3월 2일